세계 보건, 모두가 함께

이 종 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2006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그간 인류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보건부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 글이 시급한 의료현안 개선의 첫걸음이 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인간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절대가치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모든 나라가 자국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한 보건 인력을 훈련 · 유지 · 보유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병 증가로 인해 날로 높아지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개도국으로부터의 인력 수입을 확대하는 추세이고, 개도국은 이러한 인력 유출로 인해 보건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질병 예방 및 치료는 결국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충분한 보건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기란 불가능합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독감을 비롯한 기타 주요 질병에 대처하며 새천년 발전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우리의 앞길이 반드시 밝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단 실무 의료분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자, 관리자 등을 비롯한 지원 스탭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며, 자원과 역량 활용의 비효율성 및 인력 유출로 인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분명 있고, 지금도 여러 방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 인력의 교육방식 혁신, 민관협력 강화, 재정 확충, 관리체계 개선, 모범 사례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는 언제 어디서나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최대한의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보건의 날을 계기로 의료부문의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해결할 기회가 마련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